

호남석유화학, KP케미칼 인수 유력

우리은행, 최종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KC홀딩스는 예비협상자 밀려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의 최종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약 3개월의 매각과정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호남석유화학과 KC홀딩스는 2004년 1월 KP케미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3개월에 걸친 실사평가를 바탕으로 최종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인수전쟁을 치러왔으며 현재까지는 호남석유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호남석유화학은 3월22일 공시를 통해 KP케미칼 채권단으로부터 최종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KC홀딩스가 호남석유화학보다 좋은 가격을 제시해 최종우선협상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호남석유화학에 밀려 가격 이외의 조건들이 호남석유화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최종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가격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동업종 경영경험, 재무능력, 기업인수 경험, 향후 투자지원 및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도 “실체가 불분명한 KC홀딩스보다는 확실한 경영주체가 있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에도 좋은 선택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호남석유화학은 투자회사가 건설하고 앞으로 KP케미칼의 정상화와 매출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매각협상은 앞으로 호남석유화학과의 6주의 협상과정을 거칠 것으로 잠정 계획돼 있으며 호남석유화학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예비우선협상 대상자인 KC홀딩스와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최종협상 과정은 그동안 호남석유화학이 제출한 인수의향서의 확인과 세부적인 합의사항만 도출 하면 될 것”이라며 “특별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충분히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종합의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한편, 일부 증권시장에서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 인수에 과도한 자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가 아닌 적절한 투자로 생각한다”며 “PTA와 EG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외에도 PET Bottle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 또한 대단할 것”이라며 투자 후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기석 기자>

<화학저널 2004/03/23>